“〈부모은중경〉 효사상 축제로 전해요”

전주 금선암 10월 16일 금선 보은문화제 개최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시 성금 1000만원 전달
효자효녀 5명에 효행상 시상
복지시설 등에도 후원금 전달



전주 금선암은 10월 16일 완산생활체육공원서 금선 보은문화제를 개최했다.

전북무형문화재 270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각본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효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제2회 금선 보은문화제’를 개최했다.

10월 16일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금선 보은문화제에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산사 종회의원 당선자 각진 스님, 익산 정각사 일행 스님 등 스님들과 우범기 전주시장, 완산지역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 등 지역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금선암과 금선암 자비공덕회 주관으로 〈불설부모은중경〉 가르침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번째 열린 금선보은문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심을 부처님의 지혜로 치유하고 다시 희망이 꽃피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보은문화제에서는 ‘전북무형문화재 63호 전주기접놀이’ 중 판놀이를 비롯해 효행상 시상, 후원금 전달, 이웃돕기 성금 전달, 문화공연, 전주 기접놀이 ‘얼쑤~ 끝판까지 놀자’ 등이 진행됐다.

보은문화제에 참석한 전주시 삼천동, 평화동 주민 500여 명은 금선암에서 마련한 다과와 푸짐한 음식, 신바람나는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금선암과 금선자비공덕회는 평소 부모님과 웃어른을 존경하고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임현선, 주현진, 한지연, 김경은, 경다혜 씨 등 5명에게 효행상을 시상했다.

부상으로 성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의미하는 순금목걸이가 증정됐으며 청소년에게는 장학금 50만원이 수여됐다.

이어 성금 1000만원을 우범기 전주 시장에게 전달했으며 복지법인 정심원, 백련마을, 정각사 각복지센터, 전주기접놀이 보존회에 각각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불설부모은중경〉 가르침을 토대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길이 어떤 길인가 고민해 왔다. 효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박한 음식과 문화공연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은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도 갖지 못한다”며 “자연, 이웃 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란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각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는 국악인 안선희 씨 등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출연해 흥겨운 민요와 가야금 병창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가수 박인경의 가요 공연, 각설이 품바공연, 노래하는 스님 진성 스님 공연, 민요메들리가 이어졌다.

또 행사장 주변에는 쌍화차, 대추차 등 전통차 나눔, 마들렌쿠키, 팥빙수, 커피, 음료수 제공 부스가 마련됐으며 여영만 한의학 박사와 포교사단 건강바라밀 봉사팀의 엄지건강 봉사도 진행됐다.

김제 금산사 1423주년 개산대재 봉행

10월 15일 1000여 명 운집
도영 스님 “안심입명도량으로”


김제 금산사는 10월 15일 개산 1423주년을 맞아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백제 법왕 원년(599년) 백제 왕실의 자복사찰로 창건된 이래 역대 조사들의 중생구제 원력이 스며있는 김제 금산사가 개산 1423주년을 맞이했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10월 15일 금산사 개산 1423주년을 맞아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념법회와 보살계 수계식, 모악산 숲속음악회, 만등점등법회, 창작소리극 ‘떴다, 물에가 풍’ 공연 등 다채로운 개산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기념법회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삼귀의례, 한글반야심경, 연혁보고, 대회사, 기념법어, 축사, 발원문 낭독, 보살계 수계식 순으로 진행됐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일심의 근본자리를 깨우쳐 부처의 참모습을 보고,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일생동안 부단히 보살행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빈국 국왕 설개두가 부처님화상에서 설법을 듣고 정사 건립 원을 세운 일화를 설한 후 “재물을 탐하고 이웃과 경쟁하고 성내고 좌절하는 중생놀음으로는 지렁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짓”이라며 “능히 놓아버림으로써 법과 마음에도 매이지 않고 해탈할 수 있다”고 설했다.

남궁선 금산사 신도회장은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기 전에 먼저 실천하고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 한다”며 “금산사 개산대재가 불교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정성주 김제시장과 우범기 전주시장도 금산사 개산1423주년을 축하했다. 기념법회 후에는 도영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도법 스님을 갈마아사리, 평상 스님을 교수아사리로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회가 진행됐다.

또 점심공양 후에는 미륵전 앞 특설무대에서 모악산 숲속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수 남궁옥분, 소프라노 김지수, 가수 김용진, 국립창극단 김유정, 퓨전국악밴드 조선블루스가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또 심청전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소리극 ‘떴다 물에가 풍’ 공연과 만등점등법회를 끝으로 개산대재는 마무리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 성주사, 산사문화음악제 눈길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10월 15일 불모산 성주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산사문화음악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음악제에는 성주사 법안 스님, 한가람문화재단 원정 스님,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석봉암 월봉 스님, 구룡사 무성 스님, 천웅사 성우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 미타사 선해 스님, 은하사 혜진 스님, 부산불교대학 범혜 스님, 고불사 정오 스님, 창원사암연합회 스님 등 스님들과 가톨릭 마산교구 백남해 신부,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윤, 김영선 국회의원, 구준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이순 성주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안 스님은 “음악제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그윽한 가을 정취 속에 심신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가장 큰 행복은 마음의 건강”이라며 “음악회에서 힐링의 기회를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거제 계룡사 천왕문 준공 및 보살계 수계법회



거제 계룡사는 10월 16일 거제 계룡사 천왕문 광장에서 천왕문 준공식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거제 계룡사(주지 선안)는 10월 16일 거제 계룡사 천왕문 광장에서 천왕문 준공식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계룡사 선암 스님, 봉국사 현근 스님, 도성사 도천 스님, 무상사 학릉 스님, 선광사 선룡 스님, 삼보사 석현 스님, 감은사 만경 스님, 윤성원 신도회장, 서일준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선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계룡사 천왕문 준공과 함께 보살계를 받아 그 인연으로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증명법사 현근 스님은 “생명이 있는 대상에게 마음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이 내 마음을 담고 다니는 그릇임을 믿고 오계를 잘 지켜 지혜롭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윤성원 신도회장은 “계룡사 천왕문 준공은 불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준공을 계기로 계룡사가 거제불교 한축이 되어 불교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가야 초기 불교 전래 규명에 박차”

가야문화진흥원 10월 15일 제7회 학술발표회 개최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은 10월 15일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소장 장재진), (사)한국인도학회(회장 최종찬)와 공동으로 김해 가야대 대강당에서 제7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제7회 가야문화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학술대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발표회는 가야사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의 ‘가야의 건국설화와 건국정신’ 주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총 4가지 주제 발표와 논평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의 ‘가야불교의 보살계에 관한 고찰’,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금강 스님의 ‘가야불교와 가야산’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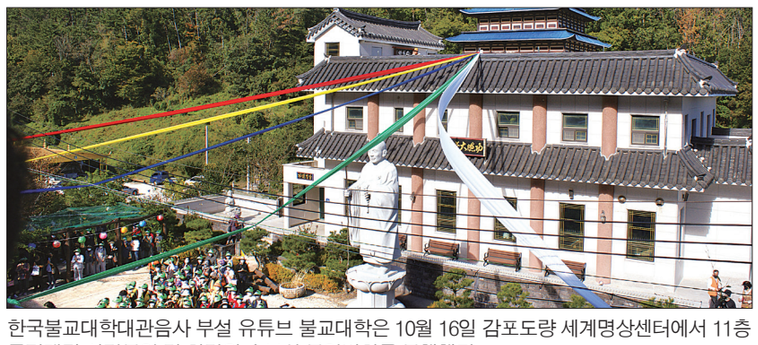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가야 문화 복원을 서원한지 어느덧 7년이 지났다. 가야 정신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야 초기 불교 전래를 규명하는 학술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가야사를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로 널리 알리고 식민사관에 맞서 가야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가야문화진흥원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며 “김해시도 가야문화진흥원과 손잡고 가야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하했다.

최종찬 한국인도학회장은 “허왕후가 인도와 가교역할을 한 것처럼 가야사가 한반도 문화 형성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유튜브불교대학, 16일 감포에 승보상 봉안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부설 유튜브 불교대학은 10월 16일 감포도량 세계명상센터에서 11층 공덕대탑 사경봉안 및 희망의 승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 부설 유튜브 불교대학은 10월 16일 감포도량 세계명상센터에서 11층 공덕대탑 사경봉안 및 희망의 승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회주 우학 스님은 “사경은 기쁜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편지를 쓰는 것”이라며 “1년에 두 번 부처님께 마음을 전하는 봉안법회를 매년 4월과 10월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승보상을 언급하며 “오늘날 스님들의 위신이 많이 떨어졌다. 예경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에서 불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감포도량은 세계명상마을 설립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포교를 위해 유튜브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3만명 불자가 가입해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제15회 복운축제’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13일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15회 복운축제’를 진행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은 10월 13일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15회 복운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다시 찾고 싶은 복지관’ 슬로건 하에 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 스님, 지역사회 기관장 및 지역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식전공연으로는 고창농악보존회의 ‘사자놀이’가 진행됐고 1부 기념식에는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흥덕면 ‘세대공감 나눔바자회’ 후원금 전달식, 15주년 기념 떡케익 컷팅식 등이 이어졌다.

한편,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은 △선운사복지재단 공로상에 이대주(운전원), 소미숙(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등이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

안동시장애인복지관 유권자교육 실시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10월 18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장애인 유권자 교육에서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 정영숙 강사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권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유권자로서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 향후 장애인 권익옹호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